

광주 광산을 보선 공천 ‘잠룡들의 대리전’

새정치, ‘세대교체론’ 앞세운 40~50대 주자 대거 몰려

안철수·손학규·박지원·박원순 측근들 물러설 수 없는 승부

7·30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앞두고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40~50대 주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안철수·박원순·손학규·박지원·이인영 등 당내 잠룡들과 당권 주자 진영의 핵심 인사들로 분류되고 있어 경선이 펼쳐질 경우, 사실상의 대리전 양상이 전개되면서 상당한 흥행을 모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7·30 호남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경선이 원칙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현장실사 탐을 파견,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10일 정치권 인사들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기 위해 호남의 40~50대 젊은 주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우선, 안철수 공동대표 진영에서는 정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과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 이상갑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 진영에서 젊고 참신한 인재가 광주의 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고문 진영에서는 이남재 전 당대표 비서실 차장이 광산 을에 사무실을 열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박지원 의원 진영에서는 김명진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브레인인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도 광산 을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내 386 그룹에서는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의 출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광온 대변인도 특유의 성실성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당내 외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적게는 40대 중반, 많게는 50대 초중반의 광주·전남 출신으로 세대교체를 이끌 차세대 주자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산 을 재보

선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한다면 당내 각 계파를 상징하는 차세대 주자들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가 펼쳐지면서 전국적인 흥행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지역 정치권의 역학구조는 물론 차기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김효석 전 의원 등 경험과 경륜이 있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의 중용론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 을 재보궐 후보 공천은 경륜 대 세대교체론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광산 을의 경우,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 정해질 경우, 세대교체를 모토로 한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상당한 흥행을 일으킬 것”이라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민심의 흐름이 변화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편파수사” 대검 항의 방문

우윤근 대화록 열람위원단장, 신경민 국정원 특위 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0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항의하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계, 신경민, 우윤근, 전혜철, 서영교, 유은혜.

/연합뉴스

與 “교육감 임명제 TF발족” 野 “선거 불복·국민무시하나”

직선제 폐지 공방 격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새누리당은 교육감 임명제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 발족 계획을 밝히며 직선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선거 불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가 너무 많다”며 “제도의 폐단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선거 제도를 만들도록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은 인사와 재정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 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

생님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줄을 서서 교단 자체가 후보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 교육현장에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라고 반발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고 교육 자치를 부정하는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장권 찬탈을 위해 직선제 대신 체육관에서 선거를 한 공화당·민정당의 후에 나온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외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행태는 사실상 선거 불복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혁신 교육을 방해하고, 종북 등의 이념 공세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화록 유출’ 편파 수사 결국 특검으로 가나

야, “정치검찰” 맹공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남 검찰이 발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사건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놓고 10일에도 “상식을 벗어난 수사”, “정치검찰의 행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화록 유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은 약식기소로 각각 결론내린 것을 두고 편파 수사 결과라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태도는 BBK 수사에 이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준다”며 “정치검찰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적폐이고, 적결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자체가 사회적 병폐”라며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런 판단을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편파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마치 87년 6월 항쟁 이전에 민주인사를 고문하며 독재정권의 안위를 지키던 정치검찰과 닮았다”고 맹비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병계 원내대변인은 “요즘 판사와 검사들은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못 갖춘 비양심적인 결론”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 정책위의장과 박 원내대변인은 오는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 공론화에 나섰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을 특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등 현재 특검을 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다”라며 특검 가능성을 열어두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정원여직원사건에 연루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현 의원은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국정원 요원의 대변인격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관피아 방지특위’ 위원장에 강기정 의원 선임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 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이 선임됐다.

강 위원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관 유착 구조를 극복하고 건강한 관료 문화를 형성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안대희법(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3대 입법 등의 법·제도 개선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현재 국회 안행위에 제출된 20여개의 공직자윤리법안 및 공공



기관 투명성을 제고하는 공공기관정보 공개법과 국가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하는 국가공무원법까지 다양한 법·제도 개선안들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2일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 관피아 척결 3대 입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담양·함평·영광·장성 보선 첫 예비후보 등록

전 도의원 김연관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7·30 보궐선거에 김연관 전 전남도위원이 첫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배기운 의원의 대법원 선고와 앞두고 보궐선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화순·나주 선거구에서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송영오 상임고문

이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도의원은 10일 “농촌의 현실을 의회에 반영해 탁상행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송 상임고문은 11일 나주 시민회관에서 에세이집 ‘대사의 정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한 빛 타 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다성드림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킴 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혁신도시 토지, 상가, 아파트
주변토지 다량보유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원 방향)

NAVER 검색엔진 단비플라워 을 추천해요

단비플라워

죽아화관3단

근조화관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텀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